

이주를 사유하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곽소연

본 프로젝트는 한국 최대의 아시아 이주민 밀집지역이자,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와 같은 '이주'의 경험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안산 원곡동이라는 장소적 모델에서 출발한다. 리트머스는 2007년도 개관 이래로 원곡동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지역적 맥락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적 실천과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고, 본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리트머스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적 실천에서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도하는 프로젝트들은 작가들이 대상 지역에서 그 지역의 커뮤니티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작업을 실현하는 방식을 통한 '현장성'을 강조하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작업 방식으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주'라는 하나의 통합적 주제를 통해 상술한 '현장성 (site)'의 의미와 예술적 실천이 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을 확장시켜보고자 기획되었다.

국제적/초국가적 네트워크

국제적/초국가적 네트워크는 본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이동'과 '이주'는 다양한 지리적 스펙트럼에서 발생하지만, '이주'라는 주제는 보편적으로 국경을 넘는 국제적 이주를 경험한 개별 주체들의 국제적/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반영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해외 작가들을 초청하여 거주와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교류나 국가와 국가, 기관과 기관 간의 국제 교류 방식을 넘어 기획자나 리트머스와 연관을 맺었던 국내외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들을 하나의 특정주제 하에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사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동 가능한 국제적/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교류를 실험하고자 한다.

주제와 작업들

본 프로젝트에서 '이주'의 개념은 광의적 의미에서 인간의 '이동'과 '이동성', '이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제반 현상들을 포괄한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도시/문화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주'와 이와 연관된 사회문화적 현상들과 보다 보편적인 삶의 양상의 변화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다양한 관점과 예술적 방법으로 접근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이주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 사적 경험을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드러나게 하고자 한다.

참여작가들의 작업들은 '이주'와 '이주적 상황' 그 자체에 대한 사회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이라기보다 이주를 경험한 개인들, '이주지'에 더 집중되어 있다. 권자연 (Jayeon Kwon)은 작가 자신이 이주를 경험한 주체로서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기억을 역사적 맥락과의 교차 지점에서 다루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기억, 상황들을 작업화 한다. 예를 들어, 알리사아 구를용 (Alicia Grullon)은 이주 대상 국가의 주류사회와 주변화 되고 소

회된 이주민들과의 소통과 조우의 문제를 다루고, 도로타 포들라스카 (Dorota Podlaska), 박도빈 (Dobin Park), 줄리아 사리세티아티 (Julia Sarisetiati)는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기반으로 이주자 개인의 내러티브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달한다. 리자 메이 데이비드 (Lizza May David)는 필리핀 영성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이주자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 초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계층과 노동의 분화 및 '이주의 여성화'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다프네 프 세르장(Daphne Le Sergent)과 얀 레미츠 (Jan Lemitz)는 이주 현상이 첨예하게 가시화되는, 스페인 남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알메리아 (Almeria) 인근 지역과 프랑스의 칼레 (Calais)와 같은 경계지역으로 관객의 시선을 이끌며, '이주적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경계와 통제, 이주의 문제 그리고 이들이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을 연구한다. 그 외에 리카 타우리아이넨 (Riikka Tauriainen)은 경계와 국경의 개념과 문제를 추상적 차원에서 다루고, 타파리 아트 워크 (Tapari art work)는 네팔 카트만두와 한국의 원곡동을 연결하여 일상적 사물을 통해 '이주'에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영의 작업은 전체 프로젝트에서 독자적이면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한다. 작가는 다양한 이주의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과 함께 DMZ 근방, 철원에 위치한, 현재는 남한에 속해 있는 북한의 옛 노동당사 건물로 탐험을 떠난다. 이 특수한 장소의 시공간적 문맥과 개인들 간의 우발적인 조우는 '즉흥성'과 '복잡성', 불안정하고 전이적인 상태를 포섭하며, 이를 통해 작업은 보편적인 '이주적 상황'의 알레고리를 기능한다.